고용노동부 | 보도자료 |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4. 2. 7.(수) 15:00 (2024. 2. 8.(목) 조간)

2024년, 청년 8만 명 이상에게 일경험 제공

- 2월 7일(수) 제4차 일경험 정책협의회 개최
-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인턴 2만7천명, 민간 4만8천명 등 일경험 지원

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는 2월 7일(수) 14:00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**제4차 일경험 정책협의회**에서 **「미래내일 일경험 지원 사업」**의 2023년 **성과를 점검**하고 **향후 추진계획**을 밝혔다. 이번 협의회에서는 「미래내일 일경험 지원 사업」 외에도 **중앙행정기관**(국조실) **및 공공기관 청년인턴**(기재부), **해외일경험**(외교부) **추진 성과**와 **향후 계획**을 논의했다. 일경험 정책협의회*는 정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제도를 총괄하고 조정하기 위해 2023년부터 운영 중이다.

* ▲(위원장)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 ▲(간사)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(공공부문),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(민간부문) ▲(위원) 관계부처(국무조정실, 고용노동부, 행정안전부, 기획재정부 등)

2023년 새로 도입한 **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**은 올해 참여 인원을 **5천명으로 늘리는**(작년 2천명) 한편, **단기형(2~3개월)을 신설**하여 **방학 기간 등을 활용**할 수 있도록 **청년의 선택 폭**을 늘렸다. **공공기관 인턴**은 올해 총 **2.2만명을 채용**하도록 추진하며,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**청년인턴**의 **정규직 연계 노력**을 반영할 예정이다. 또한,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**해외일경험 기회**도 **5,300명으로 확대**한다.

또한, 고용노동부는 작년 청년(2만 6천여 명) 및 기업(1,800개소)의 만족도*가 높았던 **「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」**의 **지원 규모**를 **대폭 확대**하여 청년 **4.8만 명에게 일경험 기회**를 지원할 예정이다. 한편, **「권역별 일경험 지원센터」 6개소****를 **신규 개설**하여 **지역 청년**들의 **접근성**을 높이고, 연고지가 아닌 다른 지역 소재 기업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에게는 **체류비 일부(1주당 5만 원)**도 추가 **지원**한다.

* (청년) ▲프로그램 만족: 86.8%, ▲직무역량 향상(5점 만점): 2.88점→4.02점(+1.14점)
(기업) ▲사업 만족: 85.4%, ▲참여목적: 인재 탐색 65.7% 산업분야 인식개선 38.6%(중복응답)

** 수도권+강원 2개소, 대전, 대구, 부산, 광주 권역 각 1개소

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"정부는 진로 탐색과 직무능력 향상을 희망하는 **청년들이 현장의 생생한 일경험 기회**를 누릴 수 있도록 「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」 **규모**를 **대폭 확대**했다"고 밝히며, "**양질의 일경험 기회**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일경험 정책협의회를 통해 **부처 협력을 지속 강화**해 나가겠다"고 강조했다.

담당 부서	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	책임자	과 장	조아라 (044-202-7451)
		담당자	사무관	강석원 (044-202-7458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